

법회 안내

- 노적사(02)386-4198
- 정가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매월 18일(음) 오전11시
- 수타사(0366)33-6611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6시
- 석왕사(0361)51-5040
- 신도법회 매월 1·15일 오전11시
강원불교대학강좌 매주 화·목
오전11시 오후7시
- 지정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 보문사(0361)57-7070
- 춘천불교청년회 목 오후7시30분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 청평사(0361)54-1092
- 신도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오전10시
- 정법사(0361)54-7194
- 일만신도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 정양사(0361)262-1085
- 일만신도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 삼운사(0361)241-1330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원법회 셋째 일 오전11시
정가법회 매월 21일 오전11시
신도법회 매주 토 오후8시30분
- 단풍사(0361)261-0436
-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 삼개사(0391)43-9234
- 정가법회 매월 14일 오전11시
토요법회 매주 토 오전11시
운전사 안전운전 불공
매월 24일(음) 오전11시
- 향림사(062)375-7600
-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 자재일포교당(0351)865-5148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5시
- 능해정사(032)519-5552
- 교리강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월 첫째 셋째주
일 오후2시
-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림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38)로 연락바랍니다.



◇한중헌의원



◇박상규의원

“해인골프장 반대 초당적 협력”

신한국당 함중헌·국민회의 박상규 불자회장

각 정당불자회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신한국당 불교신도회장 함중헌의원과 국민회의 박상규의원 등이 함께 해인사 사중은 골프장 반대운동에 대한 방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인사 사중은 새로운 “골프장 반대 집행위원회”를 주먹구구식으로 꾸렸으며, 집행위원으로는 그동안 골프장 반대운동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교무소임의 성건스님을 내정했고, 5명의 집행위원 간사중의 한명으로는 “행자교육원 술의사”인 스님을 본인의 의사도 묻지도 전에 선임해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대부분의 스님들은 “골프장 반대운동 전후사정”을 잘 모를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무관하게 선임되었으며,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추는 연등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새연등회의 창립취지”라며 “초심자의 각오로 정당불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두 정당 불자회장은 해인골프장 건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함의원은 가야산 전체를 해인사의 경내로 보아야 한다고 “초당적 입장에서 골프장건설 반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사람은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수행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도량까지 침범하는 개발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은 기자

대구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사장 원 명스님

“승·재가의 뜻을 하나로 결집해서 지역의 속인사업인 불교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총회에서 제3대 이사장에 추대된 원명스님(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은 지난 94년1월부터 2년9개월간이

끝내기전에 사표를 낸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언급한뒤 “각 신행단체의 중지를 모아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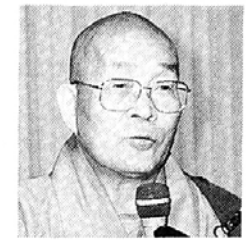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은 舊사원주지연합회가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 88년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5월로 前이사장

“공사중단 불교회관 곧 완공”

나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된 불교회관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의지를 밝혔다.

사원주지연합회 총무부장 태일스님을 단장으로 한 인수팀을 구성, 곧 인수업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스님은 “前실무책임자가 인수업체도

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이사장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공사도 재개되지 않아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대구지역 9개 신행단체가 합동으로 ‘지역의 교계 대역 스님들께 올립니다’는 호소문을 지난 8월23일 작성하여 여론화작업에 나



대구=이은호 기자

선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임원들 참석한 12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스님은 인수업체와 더불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스님은 “불교회관은 우리 모두의 소유인 만큼 누가 해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지 말고 정부가 주인이 되어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이은호 기자

계시판

보현행원품=서초 정토법당(원장 법륜)은 가을맞이 ‘회엄정 보현행원품’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1시까지 한정법사(불교정신문화원장)가 강의하며 누구나 동참가능. (02)522-2841

카운슬러대학=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는 제11기 카운슬러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상담원활동에 관심있는 모든 남녀. (02)737-7378

지불사상=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이 지난 13일부터 보조조사 지불의(법집행행록필요법정사기)와 유학사상의 근본인(논어) 강좌를 개설했다.

강의는 정병조교수(동국대)와 진성규교수(중앙대)가 각각 맡고 있으며, 3개월간 진행된다. (02)3411-6167

통원사 불교교양대학=태고종 신촌 봉원사 불교교양대학은 3개월과정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11일까지며 불자면 누구나 입학가능. (02)392-3007

차상행 행다법=한국차문화학회 다례학당 설예원(원장 이립)은 제1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산목내옹은 차의 정의, 차상행 예절, 차의 효능, 올바른 행다법 등. (0652)83-0640

간병인=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간병인교육을 실시하여 3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간병·산모간호·파출부를 양성하고 있다. (042)633-1141

석불문학회=한국 석불문학회(회장 이근후)는 오는 10월20일 오전8시에 떠날 정기대사 회원을 모집한다. 장소는 여주 신릉사, 목야바를관, 여주 석불, 선착순 40명. (02)760-5171

불교대구방송=불교대구방송은 지난 9일 대구광역시 중구 대동동 156-1 건각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053)427-5114
팩스:(053)427-4433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38-3 황정순호산부인과 건물에 교육부와 불학연구소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했다. (02)732-4923
교수물자연합회도 같은 건물 203호로 10월 초 이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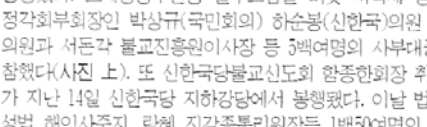
불자회 창립을 바라는 정지권 佛心



불자회 창립을 바라는 정지권 佛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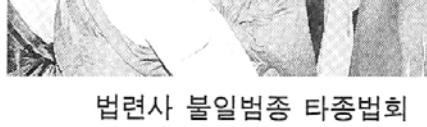
불자회 창립을 바라는 정지권 佛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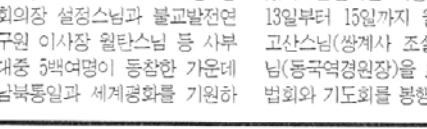
불자회 창립을 바라는 정지권 佛心



불자회 창립을 바라는 정지권 佛心



불자회 창립을 바라는 정지권 佛心



불자회 창립을 바라는 정지권 佛心

불자회 창립을 바라는 정지권 佛心



교차로

- 파계사에 태교교실 개설
성우 파계사 주지는 오는 5일(오후2-3시 30분), 6일(오후2-3시 30분) 등 2일간 진동루에서 제1회 태교교실을 개설한다.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태교방법을 소개하는 이번 태교교실은 무료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053)984-4550
- 대배 인 델리총독과 협담
성모 범어사주지는 지난 14일 다베 인도 델리총독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불교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정도의 전화 성지순례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지난 17일 정도의전화 회원을 대상으로 송광사일대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 한탄강 수해지역 위문
공덕 한국불교승가대학원 학생인교수스님은 지난 18일 추석
- 한기족부사단 환경캠페인
현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기획실장스님은 지난 15일 북한산에서 한기족부사단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
- 시집출판 관련 독일 방문
고은시인(본지 상임고문)은 명문출판사 ‘주어캠프’ 초청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 6개 도시를 순방한다. 고시인은 지난 4월 동 출판사에서 독일어판 시집을 낸 바 있다.
- 김홍국씨 초청 ‘불교’ 강연
해인 삼화불교대학 학장스님은 오는 10월2일 21세기 포교
- 김형근 ‘미주현대 불교’ 편집인
김형근 ‘미주현대 불교’ 편집인은 오는 10월27일 미주현대불교 창간 7주년 행사추진과 美 삼바라출판사와의 불교출판기획 차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 시 귀국했다.

제15대 국회정각회 회장 취임법회가 지난 13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주스님을 비롯 서석재 정각회장 정각회부회장 박상규(국민회의) 하순봉(신한국)의원 김명운의원과 서순과 불교진흥원이사장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사진 상). 또 신한국당불교신도의 합동총회장 취임법회가 지난 14일 신한국당 지하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성법 해인사주지, 락해 진각종총무원장등 1백5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사진 중).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도 지난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법원사 불일범종 타종법회

법원사(회주 현호)는 지난 13일 영산대법원에서 조계종 종회회장 설경스님과 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월탄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불일범종 타종법회를 봉행했다. 법원사는 타종을 기념해 13일부터 15일까지 월탄스님과 고산스님(쌍계사 조실) 월운스님(동국경원전장)을 초청, 특별법회와 기도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봉축기획단 사무실 개소

조계종 봉축기획단(단장 혜창)은 지난 17일 조계사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봉행했다. 대법원사무실 2층에 마련된 봉축기획단 사무실은 25평규모로 조립식건물로 봉축기획단과 조계종 각급신도회구성실무추진단이 입주했다. 봉축기획단 사무실은 금년부터 봉축기획단이 상설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마련됐다.

400년생 조계사 회화나무 ‘수술’



포교 1번지 조계사 대웅전 앞 회화나무가 외과 수술을 받았다. 82년 서울시로부터 보호수(1-1-2)로 지정받은 이나무는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썩은 부위를 치료하는 외과수술과 뿌리에 활력을 부여하는 치료를 받았다. 조계사 회화나무는 수령 4백년, 높이 24m 둘레 3.7m로 부처님오신날에는 이 나무를 중심으로 오색연등이 찬란하게 밝혀진다.

성명서

- 골프장 전면백지화 원만성취 및 해인총림 수호를 촉구하며 -

해인사 산너머 “해인”이란 이름의 “해인골프장” 법정싸움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해인사 사중은 해인총림대책위가 처음 발족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골프장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오던 학인 중심의 (집행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해산공고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다. 그야말로 해인사 사중은 골프장 반대운동에 대한 방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인사 사중은 새로운 “골프장 반대 집행위원회”를 주먹구구식으로 꾸렸으며, 집행위원으로는 그동안 골프장 반대운동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교무소임의 성건스님을 내정했고, 5명의 집행위원 간사중의 한명으로는 “행자교육원 술의사”인 스님을 본인의 의사도 묻지도 전에 선임해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대부분의 스님들은 “골프장 반대운동 전후사정”을 잘 모를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무관하게 선임되었으며,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이제 해인총림대책위의 집행위원회가 대외적으로는 두개로 비취김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격의의 여운 형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9월 14일 현재 60만명 서명원인을 육박하여 대대적인 여론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왜 해인사 사중은 골프장반대운동을 막랄하게 방해하는가? 지난 고등법원에서 7차례의 심리가 열리는 도중, 사업자들은 법정에서 조차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었다.“해인사에서 골프장 반대운동은 짧은학인 일부의 스님들만 하고 있는 것이지, 어른스님들은 찬성하고 있다.” 더군다나, 골프장 사업주 역시 MBC-TV등 언론매체와 인터뷰에 있어서, 법정발언과 똑같은 말을 자신있게 하였다. 과연 그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그저럼 당당하고 자신있게 발언하였는가? 한국불교의 일굴인 해인사에 골프장 반대운동을 방해하는 현 해인사 중무체계는 2천만 불교도의 이름으로 절저히 응징되어야 하며, 하루속히

해인사에서 완전히 퇴진해야만 한다. 더욱이, 최근 발발하고 있는 해인사 사중의 상식이하의 돌발행동 들은 대내외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총림의 기본구조는 강원과 울진 그리고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선원에서만 20여년을 정진하던 한 주스님들을 내쫓았으니, 이제는 강원도의 강주, 학갑스님 그리고 강원 전 입승(일경스님)과 골프장 반대 집행위원장(지산스님)을 해임 및 퇴방공고를 발표하여, 학인승려들의 골프장 반대운동에 대한 결정적 쇄기를 밝혔다. 급기야 강원을 “휴강”이 아닌 “폐강”을 단행함으로써, 중무소속이 원하던 원치않던 외형적으로 해인총림 구조자체까지 부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폐강> 발표 공고이후, 사중은 정제 불명의 속인까지 대동하여 강원도의 주요 요사체인 ‘적묵당’과 ‘공현당’을 폐쇄하려다 학인들의 강력한 저지로 물러났으며, 강원내 10개의 전화선을 모두 절단하는 비열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폐강>이라는 무리한 중무행정은 총림의 중무행정 담당소임자로서의 업무능력을 도저히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경진을 한창 배우고 있는 후배들을 무시는하는 처사이다.

또한 중단의 3대 속업종의 하나인 “도계양성”과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실사, <폐강>조치가 불가피했다손 치더라도, 현재 해인사에서 “행자교육원”이 개원증인것을 감안할 때,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해인강원 폐강>은 도저히 상식이하 상식밖의 행위이다. <행자교육원> 행사일정을 모두 이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 행사님 들은 급작스럽게 <수로식>을 거행하였다. 해인사의 파행적인 중무행정은 급기야, 이제 막 출간한 초심자들의 <행자교육>까지도 조기종료라는 불명예를 받게 하였다. 이 모든 파행적인 행태들은, 해인사 최고의 어른이신 해암 방장 스님께서 대중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보다는 중무소 소임자라

는 권위에 사로잡힌 권속중등 일부의 주의주장에만 편향된 뜻이다. 더 이상의 파행적인 중무행정을 끝내기 위해서는, 해암 방장 스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성법(주지)와 무착(기획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해인사가 특경으로하는 “원용살림”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해인사를 총림 본연의 자리로 회귀시켜야만 한다.

더군다나 성법은 해인사에 주지로 발령받기 위해, 호적변경을 통해 나이를 올리는등 도덕성이 의심스러우며, 청정승려로서 한국불교의 일굴인 해인사의 주지로 임명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무착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골프장사업자와의 향응 및 금품수수설이 있으며, 골프장반대운동 방해활동 및 강원폐강, 선원폐쇄에 앞장선 자로서 산문출승이 파당하다.

이에, 우리의 주장을 관철기 위해 단식정진에 돌입하며, 향후 <해인총림>과 <정법수호>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점차 수위높은 대응책을 적극 펼치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해인사 사중은 새로운 골프장 반대 집행위원회를 즉각 철회하고, 더 이상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에 대한 방해활동을 중단하라.
 - 1. 방장 스님은 최근 파행적인 중무행정을 감행하는 것은 물론 골프장 반대운동을 와해하는 성법(주지), 무착(기획실장), 성견(교무소임자)를 즉각 해임시켜야만 한다.
 - 1. “강원”과 “선원”을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파괴하는 <총림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 1. 강원외 강원으로써 안전한 교육풍토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원 및 총무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제도 개혁을 조속히 시행하라.

해인사 총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진
집행위원장 지산

불기 2540년 9월 14일